

# 영광 '친환경 농어촌버스' 100% 전기차 시대 성큼

올해 말까지 33대 전체 전환 목표  
1대당 연 3천만원 연료비 등 절감  
승차감 쾌적·교통 약자 안전 탑승  
'K-패스 사업' 참여 교통비 경감도

영광군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모든 농어촌버스를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하며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한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총 33대 중 75%에 해당하는 25대의 전기차 전환을 마쳤으며,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8대를 추가 도입해 100% 친환경버스 운행 체계를 완성한다.

군은 지난 2023년 6대를 시작으로 2024년 9대, 2025년 10대의 전기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올 하반기 8대를 추가 투입하면 예비 차량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농어촌버스가 전기저상버스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면적인 전기저상버스 도입은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추고 고유가 기조 속 경영 악화를 방어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존 내연기관 버스와 비교해 전기버스는 대당 연간 약 3천만원의 연료비와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운행 중인 25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년 7억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해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성 개선으로 직결되고,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적어 정비 편의성이 증진돼 수리 비용 절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통상 경유 버스가 1km당 250-3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버스는 배터리를 충전 등 간접 배출을 포함해도 100-150g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주행 거리 9만km를 기준으로 전기버스 1대당 매년 약 9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내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창출한다.  
특히 대중교통 체감형 편의성 역시 크게 향상돼 전기저상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출입구 턱이 없는 저상



영광군에서 운영 중인 전기버스 모습. (영광군 제공)  
중고통 복지 정책도 강화하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65세 이상 무료 버스 이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에 신규 참여해 군민들의 전반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기저상버스로의 전면 교체는 단순한 차량 변경을 넘어 고유가 시대 예산 절감과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안정적인 친환경 교통망 구축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해남군 '제55회 전국종별펜싱선수권' 오는 15-24일 우슬체육센터 일원 개최

해남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단위 펜싱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5-24일 열흘간 해남읍 우슬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제55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실업부까지 전 종별 581개팀, 4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연인원 기준 대회 기간 총 2만1천여명의 체류 방문객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대규모 선수단과 방문객의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장 안전 관리 및 숙박·음식업소 연계 지원에 집중한다.  
더불어 대회 기간 중 해남매일시장 청년몰 등과 연계한 '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제55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가 오는 15-24일 열흘간 해남읍 우슬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해남 동계전지훈련 펜싱종목 훈련 모습. (해남군 제공)

운영해 실질적인 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규모 대회 유치가 지역

## "최대 50만원 환급 받고 '반값 여행' 하세요"

완도군, 오늘부터 사전 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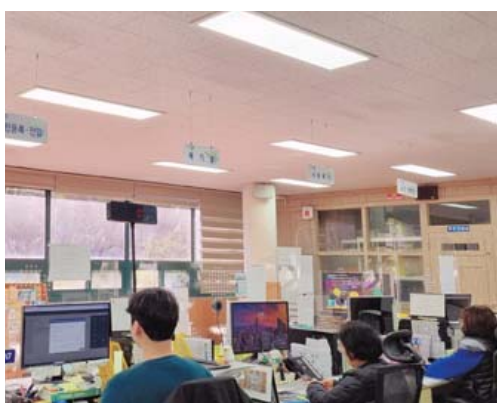
완도군이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돼 13일부터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을 통해 5월 여행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해남과 강진을 제외한 타 지역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 식사, 체험 등에 지출한 비용의 50%를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최소 소비 금액 요건은 10만원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기준 최대 10만원이며, 19-34세 청년은 14만원, 2인 이상 팀은 20만원, 최대 5인 가족 단위는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여행 최소 1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광지 방문 사진 2장과 영수증을 증빙하면 5일 이내에 전용 앱(dhak)으로 환급액이 지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과격적인 반값 지원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전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목포 부흥동, 소통·배려 '행복한 직장' 조성

4대 핵심가치 조직문화 혁신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목포시 부흥동행정복지센터가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대주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부흥동은 이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협업, 인정·격려, 건강·웰니스, 학습·성장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밝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계획'을 연중 추진한다.  
우선 수평적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주 1회 팀 단위 '10분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월 1회 전 직원 소통 회의를 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 장구를 마련한다.



목포시 부흥동행정복지센터 전경. (목포시 제공)

아울러 '칭찬 릴레이', '마니또' 프로그램, 생일 축하 이벤트 등을 도입해 직원 간 격려와 감사를 나누는 사내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직원들의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보장과 역

량 강화를 위해 정시 퇴근 장려와 연가 사용 활성화를 비롯해 휴게 공간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주 1회 '건강 실천 공유 데이'를 통해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돕는다.  
이밖에 신규 직원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선배 공무원과의 1대1 멘토링, 월 1회 직무 교육 및 학습 동아리 등도 병행 운영되며, 동은 향후 분기별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중 부흥동장은 "직원들이 존중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곧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직결된다"며 "소통과 배려가 살아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함평, 오늘 불용 임대 농기계 현장 판매

함평군은 12일 "내구연한이 초과된 불용 임대 농기계를 지역 농가에 직접 매각하는 현장 판매를 추진하며 영농비 부담 완화와 자원 재활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 1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불용 임대 농기계 매각을 위한 현장 판매 입찰을 마감하고, 13일 공개 개찰을 진행한다.  
매각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내구연한이 초과해 불용 처리된 장비들로, 소형 트랙터와 관리기 등 영농 현장 활용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됐다.  
군은 고가의 기계 신규 구입이 부담스러운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폐기 대신 간단한 수리와 정비를 거쳐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기종만 엄선해 이번 판매에 부쳤다.  
입찰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기계 상태를 직



함평군은 최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불용 임대 농기계 매각을 위한 현장 판매 입찰을 진행했다. (함평군 제공)

접 확인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낙찰자는 13일 오전 10시 공개 참여 농업인들이 입찰한 가운데 투명한 공개 개찰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저렴한 농기

계 보급이 고물가 시대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농업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영암군-경희대,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 추진

특화 콘텐츠 발굴·정책 연계

영암군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접목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로컬 브랜딩을 추진하며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달빛청춘마루에서 경희대학교 교수진·재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사회혁신스쿨 로컬브랜딩 간담회'를 열고 세부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재학생 14명이 투입돼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총 30일간 영암에 직접 체류하며 현장 중

심의 실무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 방문의 해 홍보 콘텐츠 개발, 도기박물관 및 영암물 등 특산물 유통 활성화, 매일시장 청년문화거리 조성, 마을 역사 아카이빙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전략을 수립한다.  
군은 도출된 최종 브랜딩 결과물을 향후 군정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청년 창업 모델로 연계할 방침이다.  
윤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지역 활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무안군, 양방향 청렴 모니터링 '해피톡' 운영

12월까지 주요 민원 매월 1회

무안군은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와 민원인이 동시 참여하는 양방향 청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정기적인 '청렴 해피톡(청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공사·용역·물품,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 핵심 민원 업무로, 조사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 다채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원인과 내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원 접수 단계와 처리 완료 이후를 구분해 건별 2회의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인식 변화를 정밀 분석하며, 조사 항목은 친절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매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불만족 사례를 취합해 시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객관적인 양방향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취약점을 즉각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